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

오늘날 세상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반복되는 국가주의, 인종주의, 여행 금지, 그리고 세계적인 유행병 등으로 인해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음악, 관습, 관련된 것들을 지닌 채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본거지로 돌아오기도 하며 자의건 타의건 이동을 계속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교류하고 종종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암기에 의존하다가 악보로 그리고 mp3에 이르는 음악을 저장하는 “기술들” 덕분에 음악은 이미 물리적 이동에 관련된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음악은 매우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화, 제국주의, 인구이동 등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문화적 통일성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모빌리티,” 이동성으로 전환하였으며, 이것은 인간에 관한 학문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거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세계주의와 문화적 흐름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전까지의 음악의 정전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호매체성 이론들이 대두됨에 따라 장르와 레퍼토리들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동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적, 개념적 모빌리티는 탈중심화를 촉진하는 힘이 있기에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것, 혼합적인 방법론, 인식론적 책임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2022 아테네 국제음악학회 프로그램 위원회는 음악학 전반에 걸쳐,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포절을 모집합니다. 상호연관된 역사들, 국경을 넘어서는 원전연구, 미디어연구, 음악이론, 또한 지역적/전역적 음악연구에 관련하여 어떤 연구가 떠오르고 있는가? 장르, 관습, 실제와 가상의 공간, 반구, 신념, 사회와 지식체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에서 어떠한 관계가 상호만남과 비교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들은 정당한가? 음악학은

예술적 관습이나 소설, 과학, 생태학, 사회학, 건강과 법 등과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져왔으며, 이 관계는 어떻게 더 증진되고 발전할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분석적, 역사적, 인류학적 방법론을 효율적으로융합할 수 있는가? 번역하고 변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음악가들의 관습이 이론적 패러다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발표의 종류

자유연구 발표, 원탁토론, 스터디세션에 관한 프로포절을 모집합니다.

- 자유연구 발표 세션에서는 현재 음악에 대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들이 발표됩니다. 각 발표 당 20분 프레젠테이션+ 10분 Q&A를 포함하여 30분이 주어집니다.
- 원탁토론은 위에서 언급한 학회의 전체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픽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 원탁토론은 Q&A 와 토론을 포함하여 120분입니다.
- 스터디세션은 좀 더 자유롭게 학자들이 관련된 주제의 이슈, 방법론, 연구의 관점에 대한의견을 교환하고 학회의 모든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세션입니다. 각 스터디세션은 Q&A 와 토론을 포함하여 90분입니다.

언어

가능한 많은 청중들이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발표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포절은 반드시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

프로포절 제출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발표가 확정되면 2021년 10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